



삼화 이기선

“잡념이 따르면 되는일이 없다”

무슨 일이든 정성껏 하라는 가르침

목정배 교수가 쓰는

오늘의 불교

일을 바르게 하는 자세

〈正精進〉

놀라운 사실이다. 가슴이 찢어질 듯 내려 앉는 사건이다. '우째 이런 일이'란 투박한 말이 또 국민을 울린다. 한강의 다리, 성수대교가 48m가량 폭삭 내려앉았다. 귀한 인명을 32명이나 앓았다. 끔찍한 일이다. 분노의 원성이 빗살로 내려친다.

우리는 왜 이리도 못한 사 탐인가. 다리 공사 하나 탄탄하게, 영구히 같 건설하지 못하는가.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다리를 건설하면 평균 수명이 50년이라고 한다. 그런데 성수대교는 15년의 역사밖에 갖지 않았으니 32명의 연장생명이 있는 것이다. 어찌 이런 참사가 일어났는가. 준비성, 침착성, 마감성이 병난 것이다. 하루 십만 5천여대의 차량이 왕래하고, 과학차량이 횡행 치달고 있으니 다리를 언제나 점검하는 준비성이 앞서 있어야 한다. 또한 침착하게 다리의 건강성을 진단하고 아슬한 마감성을 쏟아 놓아야 한다.그저 적당히 대응해버리면 된다는 속단성, 안일성이 병난 것이다. 흔하디 흔하게 쓰는 말이지만 백년대계가 그렇게 용이한 말은 아니다. 그러나 입으로는 백년대계를 읊조리고 있지만 실제적인 일은 엉망이다. 우리는 이제부터 제 자리를 찾는 사람으로 돌아와야 한다.

일 앞에 서는 마음

불교의 용어 가운데 정진(精進)이란 말이 있다. 팔정도의 하나이다. 정정진(正精進)이라고도 한다. 여기에 깊은 의미가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정진은 한가지 일에 열과 성을 다하여 바르게 실천하는 것이다.

착한것을 성취하기 위하여 먼산을 보지않고 그 일 자체만 생각하고 부지런히 수행하는 것이다.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쉬운 일도 정공하게 어려운 일도 실마리를 풀어가면

침착한 마음으로 극복해 나아가야 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운물방을 생각해 보라. 천천히 달구워진 돌은 위해 쓰지 않고 따듯한 난방구실을 하지 않는다. 방안에다 낙엽을 지피면 바로 방안이 얼기로 가득찬다. 그러나 그 낙엽을 다 태우고 나면 방은 차가운 한기로 가득한 것이다.

운동방의 지혜

장작개비 몇 동그라미 아궁이에 집어 놓으면 그들물이 천천히 열기를 품게 되고 구불구불 공간이 뜨거운 열기로 가득하게 되면 방안은 절로 훈기가 감돌게 된다. 이 얼마나 수승한 술기인가.

우리 이제 조급벽은 술기의 공부를 해야 한다. 왜 이렇게도 급급하고 시간에 얽매어 사는가. 세월이 말아 준다. 시간이 해결해 주는 일이 많은 것이다. 집을 짓건, 다리를 놓건, 공장을 세우건 간에 가만히 가라 앉은 마음으로 일을 대하여야 한다.

눈빛에 스친일, 손짓으로 하는 일은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마음이 들어가는 일을 하여야 한다. 마음을 일체를 완상시키는 어머니인 것이다. 어머니가 성급하게 되면 아이들도 허둥된다. 침착한 '어머니'가 집안에서 가사를 돌보면 아이들도 차분한 마음으로 공부도 하고 놀이도 즐겁게 된다.

성수대교의 참상, 이것은 공사를 하는 사람들이 시청각 독청이나 모든 사람들이 침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처럼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곳이 어디에 있는가. 안전사고는 안전하고 완벽하게 마음을 잡아 한 일이 있다면 예방할 수 있는 것이다. 정정진, 이것은 사람의 생활을 바르게 해 주는 것이고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하는 수행 지침인 것이다.

「생의 과정속에서 우리는 나(我)를 세워 나를 행위 주체로 간주한다. 내가 있어서 그와같은 일련의 과정을 주체해 왔다는 것이다. 수백의 구슬이 한줄의 실에 꿰어져 목걸이가 되듯이 삶의 모든 과정은 나라는 실로 인하여 나의 삶으로 주어진다. 그러나 거기에 행위를 주재하는 나라는 것이 과연 있는 것인가」

서울 민사지방법원 51부 박준수 판사는 생활과 선을 따로 두지 않는다. 선속에서 생활하고 생활이 곧 선의 과정이다. 그가 생활속에서 길어 올린 상념의 단상들을 정리한 글에는 순한 질문과 대답이 교차되고 있다. 화두를 풀어나가는 수행의 단면을 보는 듯이.

「거기에 나라는 것이 과연 있는가」 이것이 박판사의 화두이다. 그는 자신이란 실체에 대한 탐구로 생활선을 타고 있다.

그 뒤의 과정은 21년째를 맞은 법관의 길을 밝히는 흥분이 돼기도 해서 금칙(金尺)의 바른 사용을 가능케 한다.

「판사님은 재판의 최종 결정을 내릴 때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박준수 판사가 판결을 내리지 않습니. 가장 명확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마음속의 박준수가 판결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없는 곳에 있지요 「나」라는 실체를 지배하는 마음, 그 마음 자리를 찾아내는 것이 박판사의 수행의 전부다. 그는 「내가 없는 곳에 있는 마음을 찾이란 쉽지 않지만 그것을 보려는 노력을 쉬지 않는다면 어렵게 찾아낼수도 있는 것이 마음」이라고 덧붙인다.

실제 속의 밝은 마음 하나만 지키고 살면 평생이 회상속의 수렁이라고 강조하는 그는 현상계에 대한 일차부정과 그 부정에서의 진리파악이 곧 「내가 없는 곳에서 나를 찾는 법」이라고 강조한다.

「나라는 것은 받아지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도구에 불과하다. 나는 실재하지 않는다.」

박판사의 「나」에 대한 부정은 철저하다. 현상계의 허상을 부정하지 않고 실재를 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인간이 아는 것들은 관념적 지식일뿐 실상은 아닙니다. 양의 범위가 넓다고 해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실상의 정체를 알아내고 다시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불교의 요체라 생각합니다.”

는 신념 때문이다. 나에 대한 부정에서 나의 진면목을 찾으려는 그의 노력은 사고의 틀을 부정하는 쪽으로 확대돼 나간다.

「생각은 행동을 수반한다. 그런데 우리는 그 생각을 주재할 수가 없다. 우리마음 속에 일어나는 모든 욕망, 슬픔과 기쁨, 분노와 좌절,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마음대로 있게 할수도 없게 할 수도 없다. 그저 지켜 볼 수

밖에 없다. 선택할 수가 없다. 우리는 내가 있다고 착각하고는 그 내가 선택한다고 믿는다.」

그의 이같은 글은 판사로서의 바른 길을 걷는데 절대적인 영향을 줄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박판사는 「나」라는 착각의 영역을 벗어난 자리에서 법복을 입고 재판정에 들어 서기 때

문이다. 그래서 그는 21년간 한번도 후회스런 판결을 내린적이 없다.

「판결의 순간에 자신을 개입시키지 않는 것이 쉽지는 않을텐데요.」

▲쉽습니다. 팔막한 그의 대답 뒤에 숨어 있는

나 없는 곳에서 「나」를 찾는 법관

산문박의 11월

박준수 부장판사 <서울 민사지방법원>



현상계의 허상을 부정하고 관조하여 진실을 찾는 박준수 판사.

“마음속의 박준수가 판결을 내리는 거죠”

스스로의 수행 의지는 뭐라고 덧붙여 설명할 필요성을 뒤엎어 버린다. 관념의 세계에 도사린 허상들을 제거하는 안목이란 다른이론 밝은 마음의 자리에서 솟아나는 지혜의 샘물인 것이다.박판사는 그의 단상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다.

「내가 없다는 깨달음은 설명 우리 가 공포와 분노를 만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완전하게 경험하게 한다.그것을 나 없이 경험하게 한다 즉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는 것이 가능하게 한다. 비로소 관찰이 관조가 시작되는 것이다.」

관조의 자리, 그 자리를 찾아내는 것은 내가 없다는 것을 깨달는 데서 가능하다는 박판사의 결론, 그 결론은 다시 최초의 의문인 「거기에 나 라는 것이 과연 있는가,와 다를 것이 없다. 하나의 연이다. 처음 자리도 끝자리도 없이 이어지게 이어진다 그러나 분명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원인 것이다. 내가 있음을 부정하고 거기서 나의 실체인 마음을 찾아내는 과정속에서 박판사는 이 시대의 양심과 정의를 지켜가는 법관으로서 서 있다.

(임연태 기자)

• 성철큰스님 증정취임 법어 山은山 물은 물의 사자 후를 청봉스님이 삼법인 선회로 표현한 불기2531년 불미전금상 수상 작품임(동국대학교 총장상)



작품규격:가로 365×세로 543(%)

성철스님 무진 법문 선회 소장 안내

- 불교의 근본사상은 중생이 본래 부처라는데 있다.
- 중생을 부처로 만든다는 것은 방편일뿐 현실이대로가 절대요 극락이다.
- 사찰은 불공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곳이지 불공하는 곳이 아니다.
- 불교에 앉아 계신 부처님은 모든 존재가 부처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
- 법당에 계신 부처님 보다 먼저 불우한 이웃들에게 살신하는 것이 참불공임을 알아라.
- 이상적인 복지사회를 이룩하는 것은 모두가 함께 사는 것이다.
- 내가 신도들에게 삼천배를 시키는 이유는 자기가 아닌 남을 위한 기도를 통하여 자기성찰의 이익을 성취하게 함이니라.

-성철스님 법어중에서-

성철큰스님의 열반 1주기를 추모하며 큰스님의 선사상을 널리 고양하고자 법어중 山은山 물은 물 한국선화의 대가이신 청봉스님의 역작 삼법인 선회를 영인본으로 제작 보급합니다. 성철스님 유훈대로 선회보급의 이익금은 사회복지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 10점 1구좌 작품대금: ₩60,000
- 온라인 계좌
농협: 053-02-064700 (복지회 권오성)
국민은행: 006-21-0567-711 (복지회 권오성)
우체국: 010579-0052194 (복지회 권오성)

※ 입금후 연락주시면 작품을 우송해 드립니다.

보급처: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동문 사회복지회
전화: (02)496-5293 439-6129
FAX: (02)208-7975